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기고

강릉의 극심한 가뭄사태를 바라보며

글_한국산림기술인회 정 병 길 정회원

“한 방울의 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시점에
산과 물을 잘 다스려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거울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치산치수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슬기로운 정책으로 현대에는 국책사업으로 발전해 산림보호·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과 물을 잘 관리하여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을 먼저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농경사회가 기본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젖줄의 근원인 물은 생명의 원천이나 다름이 없었다.



치산은 1970~1980년대의 산림녹화 정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며, 이는 산사태나 수해 방지를 위해 험벗은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등 산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치수는 강의 하구보다 계곡의 물부터 다스리며, 저수지나 보를 상류에 설치하여 지혜롭게 물의 이용과 자연재난에 대처하여 왔다.

우리 숲이 연간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수자원 총량의 약190억 톤(15% 정도)으로 소양강댐 유효저수량의 10배에 달하며, 숲가꾸기 사업은 숲이 저류(흐르지 않고 머무르는 것) 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연간 약50억 톤을 더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소양강댐 3개를 더 건설해야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댐은 일제시대 수풍댐, 화천댐 등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 소양댐, 안동댐 등 용수공급이나 발전용으로 건설하여 현재 다목적댐 17개, 용수전용댐 14개, 수력발전댐 8개, 홍수전용댐 2개(하구둑, 농업용 저수지, 양수발전댐 등은 제외) 등이 존재한다. 물관리 주체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적지 적소에 건설되었고, 전국 농업용저수지는 약3,400여 곳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으로 2030년이면 우리나라도 멕시코, 아프리카 등과 같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4개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21세기는 물 전쟁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은 끝장을 보려는 가뭄 앞에 속수무책이 되어 버렸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호되게 겪고 있고, 옛말에 ‘물 쓰듯 쓴다.’라는 이야기는 물은 마시는 공기처럼 맘껏 쓸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겪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강릉시는 1986년부터 강릉댐(오봉저수지)에서 생활용수로 공급받으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원수대금을 연간 약18~4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댐 건설, 준설비, 인건비 등 유지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되겠지만, 40여 년간 약800억 원의 물 값이라니? 중·소형댐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또는 ‘뽕이 김선달인가?’라는 이야기처럼 일부 강릉시민은 물론이고, 강릉에 고향을 둔 필자도 농·임업인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해방과 6.25 동란 이후 우리 산림은 황폐화가 극에 달했다. 우리 산은 나무가 없는 죽음의 땅,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였다. 1973년부터 20여 년 동안 치산녹화 계획을 수립 최선을 다해 국토녹화를 끝낼 수 있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 산을 다스리는 분야와 물을 다스리는 분야간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 일부 정책 전환, 새로운 제도도입 등 산림 및 물관리 정책·시행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본 지면을 빌어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형과 화강암, 석회암 지질대로 토심이 얇고 연약한 지반이라 지하수 개발이 원활치 않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대형산불,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물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추세이다. 한 방울의 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시점에 산과 물을 잘 다스려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거울삼아 국민 모두가 계속되는 홍수와 가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 K-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산림자원조성 사업의 예산확충으로 국가업무로 되돌려야 한다. ☆

수년전부터 '민유임도'는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주민 체감이 높은 상하수도 사업, 마을회관 증·개축 등 타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민유조림(약1천억 원) 및 민유숲가꾸기(약1.6천억 원) 사업도 지자체로 이관계획이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충당도 어렵다는 지자체가 산림사업의 예산을 자율편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전국의 댐, 저수지 등 산림(숲)이 기여한 부분을 별도로 산출, 이를 재원으로 하여 물을 머금(수원함량)는 근간인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자원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가지원 편성예산으로 바로 되돌려야 한다.

☆ 산주들의 임업직불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8천 ha로써 전국토의 63%에 해당하며, 이중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국·공유림이 34%, 일반 국민 등의 소유 산림이 66%로 산림면적의 많은 부분이 사유림이다. 산주수는 2,198천 명이며, 21만 명의 임가 중 2024년에 약 10%(2만 1천 여명, 약 540억 원) 만이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더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의 참여를 위해선 임업직불금의 단가 인상 및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재원의 확보는 산림조성사업과 함께 수원함양림 지정면적을 고려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에서 충당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요구할 시점으로 보인다.

“ 국민 모두가 계속되는 홍수와 가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 K-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